

대학생 대상 인권감수성 척도 타당화 및 관련 변인 분석

박혜숙*, 양상희**

<국문요약>

이 연구는 문용린 외(2002)가 개발한 인권감수성 척도를 대한민국의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살펴보고, 인권감수성 수준에 관련되는 성별, 학년, 인권관련 교육경험, 지각된 대한민국 사회의 인권의식수준, 세계시민정체성, 공동체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인권감수성 척도점수 사용의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 다특성다중방법, Rasch 척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권감수성 관련 문항만으로 구성된 척도가 인권감수성과 비인권감수성 차이점수를 이용하여 개발한 척도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 인권교육경험, 세계시민정체성, 지각된 한국인의 인권수준, 및 공동체의식은 인권감수성 요소와 독특한 관련성을 보였다. 세계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과 환경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았다. 해당 정보는 인권교육 및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학년과 인권감수성 관계를 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다른 변수를 공변인으로 한 MANCOVA결과에서도 공동체의식은 유의미한 공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공동체의식 제고는 다문화 및 세계화시대에 인권감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인권감수성 척도 타당화, 공동체의식, 다특성다중방법, Rasch 측정모형, 타당도

* 박혜숙 (주저자, E-mail: parkhyes@honam.ac.kr)
학위취득대학: 미시간주립대학교 교육심리학 박사
현직: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 양상희 (교신저자, E-mail: youngyshnr@daum.net)
학위취득대학: 전남대학교 간호학 박사
현직: 광주기독병원

논문접수일: 2017년 6월 12일, 논문수정일: 2017년 7월 19일, 게재확정일: 2017년 7월 19일

Validation and Analysis of a Human Rights Sensitivity Scale

Park, Hye-sook, Yang, Sang-hee

<Abstract>

This study validated a human rights sensitivity scale developed in 2002 by Mun Young-Rin et al. Using a local university student sample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nvestigated college students' level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analyzed possible correlates such as gender, year-in-school experience, human rights-related education experience, perceived level of Korean society's human rights consciousness, identification with the concept of global citizenship, and sense of community. Results from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ultitrait-multimethods, and a Rasch measurement model indicate that using the sum of human rights-sensitive individual item mean scores for each individual episode in the survey is more valid than using difference scores obtained by deducting human rights-irrelevant item scores from human rights-sensitive items for each individual episode as suggested by Mun et al. The study found that elements of individual scale scores were distinctively associated with gender, year-in school, experie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identification with the concept of global citizenship, perceived level of Korean society's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sense of community. The information obtained can be utilized for developing programs to enhance college students'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In particular, based on MANCOVA results emphasizing sense of community 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variate of human rights sensitivity, the analysis indicates that enhancing sense of community is crucial for enhancing human rights sensitivity in a multicultural and globalized society.

[Keywords] *validation of human rights sensitivity scale, sense of community, multitrait-multimethod, Rasch measurement model, validity*

I. 도입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인들은 지역적,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갖게 되어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의 근간은 공동체의식이다. 공동체의식은 타인을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서 인정하고 구성원들의 조화로운 삶의 추구하는 것이며(배영주 2013, 147), 이는 인권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권의식은 자신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이 가진 인권에 대하여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려는 태도로 역사적으로 공동체에서 시민의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김현경·김신영 2015; 송현정 2004). 민주시민의 자질은 인권을 인식하고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한다. 인권은 도덕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권리를 지칭하는 용어이고, 시민권은 제도적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형태의 인간의 권리를 지칭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두 개념이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김자영 2011, 60)

인권의식과 시민의식은 공동체에서 이상적인 시민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간주되었다. 인권의식의 한 요소로서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가 개제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를 상상해보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라고 한다(문용린, 문미희, 박윤정 2002, 2).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문제, 가정 폭력, 학교폭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문

제는 인권의식의 부재와 긴밀히 관련이 되어 있기에 인권의식의 제고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먼저 대상자들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과 관련된 이슈와 상황에 대한 지각, 사고 및 행동에 대한 심리적인 과정으로 간주되는 인권감수성에 나타난 대학생의 인권의식 수준을 살피고 인권감수성 수준에 관련되는 공동체의식, 세계시민정체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인권감수성 척도의 구조는 어떠한가?
2. 성별, 학년, 인권교육경험, 세계시민정체성, 공동체의식, 지각된 우리사회의 인권의식과 인권 감수성과의 관계는 각각 어떠한가?
3. 다른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학년과 인권감수성과의 관계는 유의미한가?

II. 관련 문헌 연구

1. 인권과 인권감수성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이며, 한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뜻하는 개념이라고 한다(한상범 1991, 17).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연권을 의미한다(Donnelly 2013; Freeman 2011). 인간을 단순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취급된다는 칸트의 인간존엄 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시민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민의식, 즉 시민의 자질과 성격은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역사적, 사회적으로 변화해온 개념이다(김현경, 김신영 2015, 33). 고대 도시국가인 아테네 경우만 해도 귀족만이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인권은 국가 단위를 넘는 의미를 갖는 개념이 되었기에 더 넓은 시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인권과 시민권이 동일하게 사용하게 된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라고 한다. 학자에 따라 UN의 설립 이전에는 인권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었다고도 하지만(Freeman 2011),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난 인권이 가장 오래된 증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초기의 인권 개념은 국가의 부당한 개인권리 침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소유와 자유가 강조되었다. 시민의 지위와 권리, 의무를 얻기 위하여 시민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투쟁하는 모습이 시민성의 획득 및 범주의 확대로 외현적으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의 획득이라고 한다(송현정 2004; 김현경·김신영 2015, 33 재인용). 그러나 21세기 오늘날 인권은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평등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적 평등, 기회균등, 공정경쟁 등으로 나타난 자유적 평등, 그리고 물질의 분배를 통해 가치 있는 결과물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의 평등까지를 포함한다고 한다(김자영 2011, 61) 인권의 가치 실천은 18세기와는 달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교정이 필요해진다. 인권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통해 구성되고 확장되어왔다. 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Human Rights)과 세계인권규약은 그 합의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Kant의 사상은 세계인권선언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는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여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율권과 권리로 연결시킨다. 정치학에서는 인권과 연결되며, 권리(state of right), 시민 신분(the civil state)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 즉,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유, 동등성, 시민으로서의 독립성의 원칙에 근거한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인권의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깊은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채택되었다. 인권내용은 인간의 존엄성, 평등, 신체 자유,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및 인류 구성원 모두는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 세계인권선언은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언론과 신앙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등 인권이 법에 근거한 통치를 통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모든 개인과 사회단체가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과 교육을 통해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한층 더 존중되도록 노력하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회원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그 지배권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표 1>참고, 두산백과).

인권은 오늘날 존엄한 삶에 대한 최소 조건의 명시화이지만, 우리의 인간존엄성에 대한 상세한 이해는 우리의 생각과 인권에 대한 실천이며, 인권에 대한 실천은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Donnelly 2013, 39). 즉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권을 이해하고, 옹호하고 존중하는 문화와 풍토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UN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각 국가가 명시적으로

의무화 할 수 있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고, 각국이 국가인권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에서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교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 가치 태도, 기능, 행동, 감수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며, 인지, 정의, 행동 영역 전반의 인권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활동이라고 정의된다(김선필·염미경 2013, 25 재인용). 인권의식은 구성원이 인권에 대하여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옹호하려는 태도이다. 인권지식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인권침해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한 감수성, 그리고 문제를 개선 및 해결하고자 하는 인권행동의사로 구성된 복합적인 태도(김자영 2011, 57)라고 하며, 문용린 외(2002, 11)는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하려면 인권감수성(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과정), 인권에 대한 판단력(어떤 행동이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과정), 인권에 대한 동기화(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인권이라는 가치를 우선시 하는 과정), 인권옹호 행동과 관련된 성격(인권옹호 행동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실행과정)의 네 가지 심리적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인권감수성은 이 과정 중 첫 단계로 인권문제가 개재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Rest는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인권옹호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는 그 상황을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문용린 외 2002, 8 재인용). 이런 점에서 효과적인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 개발과 관련이 있다. 이승미(1999)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발달과 더불어

인권의식이 발달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용린 외(2002, 111-118)에서도 인권감수성은 중학생보다 대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고, 여성이 남성보다 인권감수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감수성이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간접적으로 대학 경험과 발달적 성향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표 1> 인권내용

인권내용		
내용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1	평등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2	생명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3	노예제도와 강제노동금지	일할 권리
4	고문 금지	정당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건강과 안전, 휴식, 공정한 보수에 대한 권리)
5	법 앞에 한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자유
6	법 앞에 평등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
8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발전에 대한 권리
9	사생활 보호권	균형잡힌 환경에 대한 권리
10	이주의 자유와 망명할 권리	인류 공동유산을 포함한 자연 및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와 접근의 자유
11	국적에 대한 권리	
12	결혼할 권리와 가족을 이룰 권리	
13	재산을 소유할 권리	
14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5	의견과 표현의 자유	
16	집회와 결사의 자유	
17	공무에 참여할 자유	

주) 문용린 외(2002)에서 발췌함.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4학년 재학생의 참여율이 낮았다.

III. 연구방법

1. 설문참여자

대한민국의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635명의 학생들로부터 2015학년도 2학기 해당 수업의 교수와 학생의 동의를 얻어 설문이 실시되었다. 남학생 260명(40.9%)과 여학생 374명(58.9%)이 참여하였고, 성별 미상은 1명이었다. 1학년은 188명(29.6%), 2학년 204명(32.1%), 3학년 175명(27.6%), 4학년은 67명(10.6%)으로 나타났다. 성별 비율은 해당

2. 도구

본 연구에서는 인권감수성 척도, 공동체의식, 시민의식 및 개인 특성 변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1) 인권감수성 척도

인권감수성 척도는 문용린 외(2002)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보고를 위해 개발한

인권감수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대학생용으로 1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10개 에피소드 모두 사용하였다. 이 지표는 Rest의 정의를 참고하고 인권감수성을 “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보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p. 11)”이라고 정의하고 Volker(1984: 문용린 2002, 10 재인용)의 검사를 토대로 상황 지각 능력, 결과 지각 능력, 책임 지각 능력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각 요소는 인권문제 지각, 인권관련 상황으로 해석, 타인의 정서인식 능력, 결과 예측 능력, 인권 이슈에 대한 책임감, 행동실천의 의지 여부로 나누었다.

문항의 내용은 세계인권선언문과 유네스코 인권교육 내용 분류표를 참고하여 사회적 이슈와 관련되는 10개의 에피소드로 그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인권 침해 사례로 연령별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전체 대한민국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해당 도구의 타당화 작업은 실시되었다. 내용타당도는 전문가 교수 2인과 인권위원회 관련자 6인의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학생 및 성인 대상 조사에서는 0.717에서 0.913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인권관련 가치 척도는 0.88, 다른 가치척도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Coefficient alpha/Cronbach's alpha)는 0.84로 나타났으나, 그 하위척도에 대한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은 각각 0.71, 0.74, 0.61로 나타났기에 연구도구로서 커다란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

나 문용린 외(2002)의 도구는 다른 도구와의 관계(준거관련 타당도)를 살펴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 및 성인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설문은 10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었다. 즉

①가족회의(노인의 결혼할 권리; 행복추구권), ② 김씨의구속(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③장애인학교(장애우의 교육권) ④려씨임금(이주노동자의 노동권), ⑤공장건립(환경권), ⑥감원대상(성차별과 감원) ⑦국가의료정보 센터 설립(개인정보수집과 관련된 사생활권), ⑧의사의고민(장애우의 신체의 자유권) ⑨진료자명단(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⑩판사의고민(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관한 것이다. 각 에피소드는 인권관련 및 비인권관련한 쌍으로 된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각각 2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문용린 외(2002)에 의하면, 에피소드 채점 방식은 인권감수성 문항에 대한 반응이 다른 가치에 대한 반응보다 큰 경우만 선택하여 인권감수성 문항에 평정한 점수를 준다. 인권감수성 문항에 대한 반응보다 다른 가치 문항에 대한 반응이 높거나 같을 경우에는 0점을 준다. 각 에피소드당 0점에서 15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수 산정에 대한 타당성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서 본 연구를 통해서도 이 채점방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질문에 대한 문항반응의 차이가 있는 경우만 해당 척도 점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인권 상황에 대한 반응만을 가지고 1점부터 5점 척도를 사용한 경우도 비교하고, 더 타당한 점수산정 방법을 선택하여 대학생의 인권 감수성 수준과 관련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2) 공동체의식

McMillan과 Chavis (1986)에 의하면 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이며, 구성원들의 욕구가 현실적인 노력을 통하여 충족된다는 공유된 느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구성원들이 역사, 장소, 시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또는 헌신이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나타난 4개 문항 ①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음 ②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음 ③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음 ④ 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자절약, 쓰레기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①매우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감수성 척도와 공동체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수준

인권상황, 인권 국제조약 준수,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건강권 존중, 환경권 존중, 교육권 존중, 주거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존중,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의 문항으로 된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 개인이 생각하는 우리사회의 인권의식에 대한 현주소를 평가하는 것이다. 5점 척도로 된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해당 척도의 정규성가정을 확인하고, 상관분석, 요인분석,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30개 문항에 대한 구인 및 준거관련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수를 확인하고자 R psych package(Revelle 2016)를 사용하여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 Horn 1965)을 실시하였다. Horn(1965)에 의하면 평행분석은 관측된 자료와 변수 및 표본 크기에서 유사한 상관이 없는 변수로부터 반복적으로 표집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대된 고유값을 계산하고, 고유 값 크기순으로 나열하고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자료에서 얻은 평균 고유 값보다 실제 자료의 고유 값이 큰 경우의 요인 갯수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문용린 외(2002)의 타당화 관련 연구에서는 다특질다방법(multitrait-multimethod approach)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문항에 피소드(방법)으로 간주하고,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을 인권특성으로 간주하여 인권감수성을 측정하는 방법(에피소드)보다 더 문항이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측정방법에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을 이루는 10개 문항들의 상관이 각 에피소드를 이루는 세 개의 문항보다 낮을 경우, 에피소드당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예비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에피소드를 이루는 문항들의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단일차원을 가정하는 Rasch 측정모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Rasch측정모형의 잔차 분석에서는 Rasch모형이 설명하는 변량이 50%가 넘을 경우, 단일차원으로 볼 수 있다(Bond·Fox 2013; Linacre 2009).

본 연구에서는 인권감수성 척도 관련하여

문용린 외(2002)에서 사용한 문항과 비인권감수성 문항과의 비교를 통한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 아니면, 인권감수성 문항만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인지 확인한 후 연구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은 1, 여학생은 0으로 코딩하였고, 인권감수성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추가 분석을 위하여 상관분석,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관심 변인의 하나인 학년에 따른 인권감수성 하위요인들(인권감수성 개별척도)과의 관계가 다른 변인을 통제하고도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MANCOVA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1. 인권감수성 타당화

우선적으로 문용린 외(2002)가 개발한 척도점수의 사용이 적절한지 살펴보고자 인권감수성 문항과 비인권감수성 문항의 차이를 이용한 점수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수를 확인하고자 R을 사용한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 (Horn, 1965)Horn, 1965)을 실시한 결과, 10개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2> 참고). 각 요인은 에피소드를 나타내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집단다방법(Multitrait-multimethod: MTMM)분석을 실시한 결과, 에피소드(방법)와 관련된 문항의 상관계수가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인권감수성 특성)에 관련된 문항의 상관계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 예로 노인행복추구권과 관련된 세 문항, 즉 z_1 , z_2 , z_3 의 표준화계수는 0.67, 0.55, 0.71이었고, 특성을 나타내는 z_1 (상황지각), z_2 (결과지각), z_3 (책임지각)의 표준화계수는

0.3, 0.4, 0.3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특성(trait)인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으로 문항들이 구성되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는 않았고 에피소드 별 단일차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고). 개별문항과 해당 구인(trait)과의 상관계수가 인권감수성문항과 비인권감수성 문항과의 차이점수를 이용한 척도 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보다 인권감수성 관련 문항만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더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점은 각각의 에피소드가 인권감수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인권감수성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보다 요인과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그 예로 z_1 , z_2 , z_3 는 노인행복추구의 구인으로 볼 때 ($\beta_1 = 0.67$, $\beta_2=0.55$, $\beta_3=0.71$)로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 인권감수성의 특성(trait)으로 볼 수 있는 상황지각(0.30), 결과지각(0.40), 책임지각(0.38) 계수는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이후 분석에서는 개별 에피소드 척도를 이용하였다 (<표 4>, [그림 1] 참고).

또한 각 에피소드에 관한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인권관련 문항과 비인권관련 문항에 대한 차이점수를 이용한 신뢰도는 0.6 이상이었다. 그러나 인권관련문항만을 사용한 척도에 대한 신뢰도가 인권감수성 차이점수를 이용하여 얻은 신뢰도보다 대체적으로 더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3>참고).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관련 각각 10개 문항에 대한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인권관련과 비인권관련 문항에 대한 차이로 계산된 경우 각각 0.51, 0.59, 0.55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관련 문항만을 사용한 경우는 0.70, 0.71, 0.65로 더 높았다. 문항차이를 이용한 모형에서의 Rasch 측정모형이 상황지각, 결과

지각, 책임지각 각각을 단일 차원으로 보기는 힘들었다. 모형이 설명하는 변량은 24.3% 28%, 24.8%로 10개의 문항이 해당 특성을 이루는 단일 차원이라고 보는 것은 인권관련 문항을 사용한 경우보다 더 낮았다.

에피소드를 하나의 구인으로 간주하였을 때, Rasch 측정모형이 설명하는 변량이 1개 에피소드(거의 50%에 가까움)를 제외하고 50%가 넘어 각 에피소드를 이루는 세 개의 문항이 단일차원이라고 볼 수 있었다. 전체 문항(n=30)을 사용한 Rasch 잔차분석에서도 모형이 설명하는 변량은 50%보다 크게 낮은 29.2%로 단일차원으로 보기가 힘들었으며,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세 특성도 개별 10개 문항들이 각 해당특성(구인)을 나타낸다고 보기가 힘들었다. Rasch 잔차 분석에서도 모형이 설명하는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변량은 각각 34.4%, 32.1%, 30.4%로 나타나 단일차원으로 보기가 힘들었다(<표 3 >참고). 인권감수성과 관련이 높다고 생각되어 준거관련 변수로 사용되는 공동체의식과의 상관도 인권감수성 관련 문항을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을 때 더 높았다. 이런 이유로 인권관련 문항점수만을 사용한 에피소드 별 문항 평균을 사용하여 후속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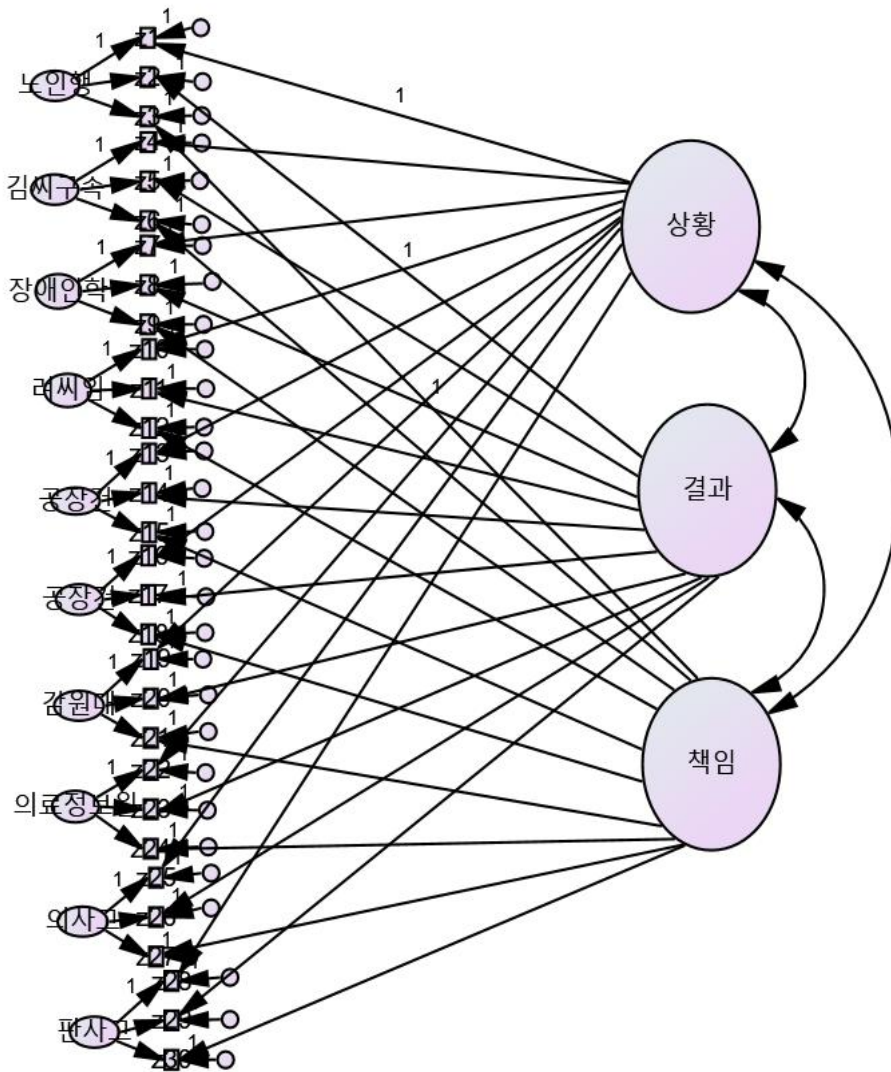
item	pa3	pa7	pa4	pa2	pa5	pa1	pa8	pa6	pa10	pa9
z1	0.00	0.75	-0.05	0.03	0.02	0.01	0.01	-0.06	0.01	0.00
z2	-0.01	0.61	0.06	0.01	0.01	0.01	0.00	0.06	0.04	0.02
z3	0.01	0.80	0.02	-0.02	-0.01	0.00	-0.01	0.03	-0.01	0.01
z4	-0.02	-0.03	0.71	0.00	0.00	-0.03	-0.01	-0.01	-0.04	0.05
z5	0.05	0.06	0.74	0.00	-0.03	0.00	0.07	0.02	0.01	-0.05
z6	-0.04	-0.02	0.65	0.04	0.04	0.05	-0.05	-0.01	0.08	0.06
z7	-0.02	0.03	0.09	-0.03	0.05	0.08	0.07	-0.01	0.66	-0.01
z8	0.02	0.02	0.08	-0.05	0.05	-0.02	0.09	0.13	0.31	0.02
z9	0.07	0.02	-0.03	0.03	-0.02	0.02	-0.05	0.05	0.71	0.02
z10	0.05	0.04	0.02	0.02	-0.02	0.83	0.03	0.00	-0.02	0.01
z11	-0.03	-0.03	0.03	0.01	0.12	0.62	0.02	0.00	0.07	0.06
z12	0.03	0.05	-0.04	-0.01	-0.03	0.56	0.02	0.00	0.19	0.02
z13	0.77	0.04	0.07	0.00	0.12	0.01	0.02	-0.03	-0.05	-0.02
z14	0.74	0.01	0.00	-0.07	0.01	0.11	-0.01	0.08	0.03	0.02
z15	0.70	-0.05	-0.07	0.08	-0.08	-0.06	0.04	0.00	0.11	0.07
z16	0.04	-0.07	0.04	0.01	0.04	0.13	0.64	0.07	-0.06	0.07
z17	-0.01	0.03	0.01	-0.03	-0.01	0.01	0.83	0.03	0.01	-0.05
z18	0.03	0.03	-0.05	0.09	0.05	-0.09	0.55	-0.10	0.08	0.14
z19	0.10	0.05	0.01	0.00	-0.05	0.07	0.04	0.09	-0.04	0.61
z20	-0.02	0.02	0.02	-0.05	0.08	0.03	0.07	0.07	0.03	0.57
z21	-0.01	0.00	0.03	0.07	0.05	-0.02	-0.05	-0.10	0.02	0.59
z22	0.07	-0.01	0.04	0.02	0.04	-0.02	-0.01	0.69	-0.04	0.01
z23	-0.02	-0.01	0.02	0.01	0.03	-0.05	0.03	0.66	0.12	0.02
z24	0.00	0.07	-0.04	0.04	0.01	0.07	0.05	0.63	-0.01	0.02
z25	0.00	-0.01	0.05	0.01	0.65	-0.03	0.02	0.06	0.01	0.07
z26	-0.09	0.03	-0.04	-0.03	0.65	0.09	-0.01	0.14	0.03	0.05
z27	0.11	0.01	0.01	0.05	0.77	-0.02	0.03	-0.06	0.00	-0.03
z28	0.08	-0.03	0.08	0.70	-0.02	-0.04	-0.01	0.03	0.04	-0.01
z29	-0.03	0.01	-0.02	0.77	0.03	0.08	-0.01	0.02	-0.05	-0.02
z30	0.08	0.03	0.03	0.62	0.02	-0.04	0.04	0.00	0.03	0.06

주)z1-z30는 인권관련 문항으로 상황지각, 결과 지각, 책임지각 순으로 10개 에피소드에 대한 문항을 나타낸다. TLI=0.935, RMSEA=0.035.

<표 3>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및 구인타당도

에피소드	인권관련문항-비인권관련문항 차이점수*		인권관련문항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	Rasch 모형 설명력 (%)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Rasch 모형 설명력 (%)
노인의 행복추구권(가족회의)	0.65	60.59	.77	61.7
구금으로부터 자유(김씨구속)	0.71	60	.75	60.7
장애우 교육받을 권리(장애인학교)	0.74	48.9	.65	49
이주노동자의 노동권(러씨의임금)	0.70	58.8	.79	59
환경권(공장건립)	0.76	65.5	.81	65.6
평등권(감원대상)	0.68	57.8	.73	57.4
사생활권(의료센터설립)	0.68	56.3	.68	56.7
장애우의 신체자유권(의사고민)	0.75	55.5	.75	55.7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진료자명단)	0.77	57.4	.78	57.6
구금으로부터 자유(환사의고민)	0.62	57.5	.75	58.1

주) 차이점수는 인권관련문항 점수가 비인권관련 문항 점수보다 높을 경우, 인권관련문항반응에 표기한 응답이 해당 문항의 점수가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0점임.



[그림1 다특성다방법]

<표 4> 다특성다방법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i>b</i>	<i>S.E.</i>	<i>C.R.</i>	<i>p</i>	β
z1	<---	노인행복	1.00				0.67
z2	<---	노인행복	0.70	0.06	10.98	***	0.55
z3	<---	노인행복	1.02	0.09	10.96	***	0.71
z4	<---	김씨구속	1.00				0.67
z5	<---	김씨구속	0.94	0.09	11.00	***	0.67
z6	<---	김씨구속	0.92	0.08	11.02	***	0.61
z7	<---	장애우학습권	1.00				0.68
z8	<---	장애우학습권	0.39	0.12	3.39	***	0.22
z9	<---	장애우학습권	0.83	0.23	3.62	***	0.53
z10	<---	이주노동자 노동권(려씨임금)	1.00				0.66
z11	<---	이주노동자 노동권(려씨임금)	0.65	0.10	6.67	***	0.41
z12	<---	이주노동자 노동권(려씨임금)	0.76	0.11	6.67	***	0.46
z13	<---	환경권(공장건립)	1.00				0.64
z14	<---	환경권(공장건립)	1.06	0.08	12.63	***	0.65
z15	<---	환경권(공장건립)	0.98	0.08	12.30	***	0.63
z16	<---	성차별(감원대상)	1.00				0.54
z17	<---	성차별(감원대상)	1.18	0.16	7.32	***	0.64
z18	<---	성차별(감원대상)	0.80	0.11	7.64	***	0.41
z19	<---	사생활침해 (국가의료정보)	1.00				0.44
z20	<---	사생활침해(국가의료정보)	1.00	0.17	6.06	***	0.46
z21	<---	사생활침해(국가의료정보)	1.14	0.20	5.74	***	0.53
z22	<---	구금의 자유(의사고민)	1.00				0.54
z23	<---	구금의 자유(의사고민)	0.77	0.11	6.74	***	0.43
z24	<---	구금의 자유(의사고민)	0.94	0.14	6.58	***	0.52
z25	<---	사생활침해(진료 자명단)	1.00				0.57
z26	<---	사생활침해(진료 자명단)	0.83	0.09	9.03	***	0.49
z27	<---	사생활침해(진료 자명단)	1.14	0.13	8.70	***	0.62
z28	<---	판사의고민	1.00				0.70
z29	<---	판사의고민	1.03	0.09	11.76	***	0.76

z30	<---	관사의고민	0.84	0.07	11.74	***	0.60
z1	<---	상황지각	1.00				0.30
z4	<---	상황지각	0.82	0.20	4.19	***	0.23
z7	<---	상황지각	1.67	0.27	6.17	***	0.51
z10	<---	상황지각	2.09	0.32	6.45	***	0.60
z16	<---	상황지각	2.17	0.34	6.43	***	0.59
z13	<---	상황지각	1.59	0.27	5.90	***	0.44
z19	<---	상황지각	2.13	0.33	6.37	***	0.57
z22	<---	상황지각	1.99	0.33	6.12	***	0.49
z25	<---	상황지각	1.80	0.30	6.06	***	0.48
z28	<---	상황지각	0.85	0.23	3.76	***	0.19
z2	<---	결과지각	1.00				0.40
z5	<---	결과지각	1.04	0.17	6.25	***	0.34
z8	<---	결과지각	1.41	0.21	6.87	***	0.40
z14	<---	결과지각	1.76	0.22	7.94	***	0.53
z11	<---	결과지각	1.82	0.22	8.19	***	0.58
z17	<---	결과지각	1.58	0.21	7.67	***	0.49
z20	<---	결과지각	1.72	0.22	8.02	***	0.55
z23	<---	결과지각	1.73	0.22	7.77	***	0.51
z26	<---	결과지각	1.78	0.22	8.02	***	0.55
z29	<---	결과지각	0.62	0.17	3.63	***	0.17
z3	<---	책임지각	1.00				0.38
z6	<---	책임지각	0.95	0.17	5.63	***	0.32
z9	<---	책임지각	1.27	0.19	6.78	***	0.44
z12	<---	책임지각	1.58	0.22	7.28	***	0.51
z15	<---	책임지각	1.02	0.17	5.97	***	0.35
z18	<---	책임지각	1.29	0.20	6.55	***	0.41
z21	<---	책임지각	0.86	0.16	5.37	***	0.30

2. 인권감수성과 개별 변인과의 관계 탐색

에피소드 간의 상관은 대체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낮은 수준($r=0.1$)부터 보통 정도의 수

준($r=0.46$)으로 단일차원으로 보기에는 힘들었다. 본 연구에서 주 변인 중의 하나인 공동체 의식과 인권감수성 에피소드와는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었다(<표 5> 참고).

<표 5> 인권감수성 개별 에피소드와의 상관관계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성별	학년	교육	KHR	G_id
e1	1														

e2	.11**	1															
e3	.30**	.22*	1														
e4	.35**	.21*	.46**	1													
e5	.13**	.15*	.32**	.34**	1												
e6	.25**	.19*	.28**	.41**	.33**	1											
e7	.23**	.20*	.28**	.36**	.29**	.38**	1										
e8	.26**	.22*	.39**	.36**	.30**	.35**	.35**	1									
e9	.22**	.25*	.25**	.31**	.30**	.36**	.39**	.42**	1								
e10	0.1	.16*	.09*	0.1	.09*	.12**	.22**	.12**	.23**	1							
성별	.00	.02	-.01	-.05	-.02	-.18**	-.03	-.00	-.08	-.03	1						
학년	.08*	.03	.00	-.01	-.05	.01	.04	.01	.07	.07	.04	1					
교육	.05	.09*	.03	.11**	.15**	.09*	.00	.09*	.03	-.01	.14*	-.20**	1				
KHR	.082*	.01	-.04	.01	-.03	-.05	-.06	-.02	-.03	.02	.09	-.06	.02	1			
G.id	.044	-.00	.03	.11*	-.04	.09	.05	.02	.00	-.03	-.04	-.11*	.10*	.21*	1		
S.Co m	.17*	.07	.23**	.30**	.13**	.14**	.11**	.19*	.18**	.09*	-.01	.02	.13**	.13**	.26**	1	

주) * $p < .05$, *** $p < .001$. e1-e10은

에피소드를 나타낸다. ①가족회의(노인의 행복추구권), ② 김씨의구속(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③장애인학교(장애우의 교육권) ④려씨임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⑤공장건립 (환경권), ⑥감원대상(성차별과 감원) ⑦국가의료정보 센터 설립(개인정보수집과 관련된 사생활권), ⑧의사의고민(장애우의 신체의 자유권) ⑨진료자명단(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⑩판사의고민(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관한 것이다. 교육은 인권관련 교육경험 유무, KHR은 지각된 한국인의 인권수준을 나타내고, Gid는 세계시민정체성, 그리고 SC(sense of community)는 공동체의식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에피소드 평균에 나타난 인권 감수성 수준은 다양하였지만 장애학교(장애우의 학습권), 공장건축(환경권)에 관한 에피소드를 제외하고 1학년에 비하여 4학년이 대체적으로 더 높았다(<표 6, 8> 참고). 그러나 가족회의(노인의 행복추구권) 에피소드에서만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학년은 1학년에 비하여 노인의 행복추구권 관련 인권감수성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감원대상(성차에 따른 고용) 에피소드에 있어서 인권감수성 수준이 더 높았다(<표 6, 7, 8> 참고).

<표 6> 기술통계 학년에 따른 인권감수성

에피소드	학년	평균	표준편차	N
가족회의	1	4.08	0.68	114

	2	4.19	0.61	125
	3	4.10	0.63	110
	4	4.26	0.69	44
	합계	4.14	0.64	393
김씨구속	1	3.82	0.67	114
	2	3.72	0.75	125
	3	3.83	0.68	110
	4	3.88	0.66	44
	합계	3.80	0.70	393
장애학교	1	3.85	0.60	114
	2	3.84	0.69	125
	3	3.84	0.63	110
	4	3.81	0.71	44
	합계	3.84	0.65	393
러씨임금	1	4.18	0.68	114
	2	4.00	0.81	125
	3	4.06	0.69	110
	4	4.29	0.70	44
	합계	4.10	0.73	393
공장건립	1	3.80	0.67	114
	2	3.67	0.78	125
	3	3.62	0.78	110
	4	3.77	0.73	44
	합계	3.70	0.75	393
감원대상	1	3.89	0.69	114
	2	3.90	0.76	125
	3	3.82	0.74	110
	4	4.08	0.60	44
	합계	3.90	0.72	393
국가의료정보원	1	3.79	0.65	114
	2	3.77	0.72	125
	3	3.82	0.72	110
	4	3.94	0.68	44
	합계	3.81	0.69	393
의사고민	1	3.99	0.69	114
	2	3.74	0.72	125
	3	3.78	0.85	110
	4	4.02	0.74	44
	합계	3.85	0.76	393
진료자명단	1	3.83	0.73	114
	2	3.72	0.70	125
	3	3.89	0.80	110

	4	4.06	0.71	44
	합계	3.84	0.74	393
판사고민	1	3.17	0.75	114
	2	3.12	0.88	125
	3	3.21	0.80	110
	4	3.32	0.85	44
	합계	3.18	0.82	393

<표 7> 에피소드와 성차 및 학년과의 관계

감원대상		평균	표준편차		제공합	df	평균제공	F	p
성별	여	2.09	1.78	집단-간	61.54	1	61.54	21.20	.000
	남	1.45	1.58	집단-내	1779.48	613	2.90		
	합계	1.82	1.73	합계	1841.02	614			
가족회의	1학년	2.61	1.69	집단-간	25.63	3	9	3	.028
	2학년	2.82	1.65	집단-내	1698.29	607	3		
	3학년	2.64	1.68	합계	1723.92	610			
	4학년	3.29	1.68						
	합계	2.76	1.68						

<표 8> 학년과 인권감수성(가족회의)과의 관계

(I) 학년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1	2	-0.21	0.17	0.69
	3	-0.03	0.18	1.00
	4	-.67840*	0.24	0.05
2	1	0.21	0.17	0.69
	3	0.18	0.18	0.79
	4	-0.47	0.24	0.27
3	1	0.03	0.18	1.00
	2	-0.18	0.18	0.79
	4	-0.65	0.24	0.07
4	1	.67840*	0.24	0.05
	2	0.47	0.24	0.27
	3	0.65	0.24	0.07

인권관련 교육경험 유무는 인권감수성 에 많은 경우보다 인권감수성 수준이 더 높았다. 피소드에 따라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김씨구속(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려씨임금(외국

인 노동자 노동권), 공장건립(환경권), 감원대 상(고용/해고에 관한 성차별), 의사고민(장애우 의 신체자유권)에 있어서 인권감수성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9> 참고).

<표 9> 인권감수성 에피소드와 인권관련 교육경험

		평균	표준편차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p
R1가 족회의	집단-간	2.73	1.69	0.42	1	0.42	0.15	0.70
	집단-내	2.79	1.67	1703.89	601	2.84		
	합계	2.76	1.68	1704.31	602			
R2김 씨구속	집단-간	1.79	1.67	13.45	1	13.45	4.56	0.03*
	집단-내	2.08	1.77	1795.34	608	2.95		
	합계	1.93	1.72	1808.79	609			
R3장 애학교	집단-간	2.06	1.81	4.87	1	4.87	1.49	0.22
	집단-내	2.24	1.81	1973.15	604	3.27		
	합계	2.14	1.81	1978.02	605			
R4려 씨임금	집단-간	2.76	1.78	23.27	1	23.27	7.76	0.01*
	집단-내	3.15	1.68	1817.05	606	3.00		
	합계	2.94	1.74	1840.31	607			
R5공 장건립	집단-간	1.65	1.73	13.98	1	13.98	4.36	0.04*
	집단-내	1.96	1.86	1936.08	603	3.21		
	합계	1.80	1.80	1950.07	604			
R6감 원대상	집단-간	1.69	1.68	13.14	1	13.14	4.40	0.04*
	집단-내	1.99	1.78	1806.83	605	2.99		
	합계	1.84	1.73	1819.97	606			
R8의 사고민	집단-간	1.89	1.83	25.48	1	25.48	7.55	0.01*
	집단-내	2.30	1.84	2047.68	607	3.37		
	합계	2.09	1.85	2073.16	608			
R9진 료명단	집단-간	1.85	1.86	4.27	1	4.27	1.26	0.26
	집단-내	1.68	1.82	2054.25	606	3.39		
	합계	1.77	1.84	2058.51	607			
R10판 사고민	집단-간	0.67	1.17	0.66	1	0.66	0.46	0.50
	집단-내	0.74	1.23	876.72	607	1.44		
	합계	0.70	1.20	877.39	608			

<표 9> 인권감수성 에피소드와 인권관련 교육경험주 * 유의수준($\alpha=0.05$) 수준에서 유의함

지각된 우리사회의 인권 수준과 개별 에피소드에 나타난 인권감수성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세계시민정체성과 인권감수성 에피소드 중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과 환경권(생태학적으로 균형된 환경에서 살 권리)관련 인권감수성은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즉, 세계시민 정체성이 높을수록, 외국

인 노동자 노동권과 환경권 관련 인권감수성이 더 높았다(<표 10> 참고). 한 개의 에피소드(김씨구속: 불법체포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제외하고, 공동체의식이 높은 경우, 그 외 에피소드에 나타난 인권감수성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7> 참고).

<표 10 >주관적 세계시민정체성과 인권 감수성 에피소드와의 관계

문항반응		평균	표준 편차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p	
려씨임금	1	3.58	1.05	집단-간	6.22	4	1.55	2.98	0.02
	2	4.08	0.70	집단-내	210.31	403	0.52		
	3	4.08	0.70	합계	216.52	407			
	4	4.27	0.68						
	5	4.09	0.86						
	합계	4.10	0.73						
공장건립	1	3.33	1.14	집단-간	5.51	4	1.38	2.53	0.04
	2	3.72	0.72	집단-내	217.47	400	0.54		
	3	3.77	0.65	합계	222.98	404			
	4	3.63	0.90						
	50	3.42	0.71						
	합계	3.70	0.74						

3. 다른 변인 통제 후 인권감수성 에피소드와 학년과의 관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서로 상관이 유의하였기에 10개의 에피소드를 종속변인으로 한 후 인권감수성과 학년과의 관계를 다른 변수를 공변인으로 한 MANCOVA를 실시한 결과, 학년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지 공변인인 공동체의식만이 유의하게 인권감수성 에피소드와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즉 공

동체의식이 높은 경우, 인권감수성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Roy-Bargman의 순차적 분석(step down analysis) 해석에 의하면 다른 모든 모형에 들어간 공변인 통제 후에는 종속변인인 인권감수성 에피소드 중 가족회의 에피소드와 공동체의식은 정적인 관계($p<0.01$)가 있었으며, 종속변인인 가족회의를 통제 후의 김씨구속 에피소드와 공동체의식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순차적으로 사용된 모든 해당 종속변수는 앞서 나온 변인을 통제 후의

공동체의식과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Tabachnick·Fidell, 1996, 376).

<표11> 개체 간 효과 검정: 학년과 공동체의식

	소스	자유도	평균 제곱	일변 변량 <i>F</i>	<i>p</i>	Pillai	다변량 <i>F</i>
R공동 체의식	가족회의	1	5	13	0.00	0.10	4.20*
	김씨구속	1	0	0	0.49		
	장애학교	1	7	17	0.00		
	려씨임금	1	13	27	0.00		
	공장건립	1	2	3	0.07		
	감원대상	1	5	10	0.00		
	국가의료정보원	1	4	8	0.01		
	의사고민	1	4	7	0.01		
	진료자명단	1	7	13	0.00		
관사고민	1	4	6	0.01			
학년	가족회의	3	1	2	0.15	0.09	1.21
	김씨구속	3	0	1	0.43		
	장애학교	3	0	0	0.98		
	려씨임금	3	1	3	0.05		
	공장건립	3	0	1	0.48		
	감원대상	3	1	1	0.26		
	국가의료정보원	3	0	0	0.69		
	의사고민	3	2	3	0.02		
	진료자명단	3	1	2	0.08		
관사고민	3	0	0	0.71			

주)학년 당 표본 수가 달라서 Pillai test 결과를 보고함. 지면상 주 독립변인인 학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변인인 공동체의식만 보고함.

V. 요약 및 논의

대한민국의 한 지방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이해하고자 문용린 외(2002)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보고서를 위해서 개발한 인권감수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그들이 개발한 척도 점수사용의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10개의 에피소드를 방법변인으로 하고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을 세 개의 특성변인으로 간주한 다특성다방법(MTMM),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및 Rasch 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권관련 문항으로만 구성된 개별 에피소드의 척도 점수를 이용한 것이 인권관련문항과 비인권관련 문항의 차이점수를 이용한 척도보다는 특히 구인타당도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개의 에피소드를 각각의 방법변인으로 간주하여 즉, 독립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Crowson(2004)에 의하면 인권관련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다차원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여러 에피소드가 하나의 구인을 이룬다기보다는 독립적인 개별 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게 나타났다. 이런 이

유로 인권감수성 구인의 에피소드별 분석을 하였다. 이 점에서 문용린 외(2002)가 제안한 척도사용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각의 에피소드를 독립적인 개별 요인으로 간주하고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수준을 살펴보자. 성별, 학년, 인권관련 교육경험, 세계 시민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원개발자가 제안한 모든 문항으로 이루어진 총점을 사용하는 대신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 에피소드별 문항평균을 이용한 상관분석, ANOVA, MANCOVA를 통하여 개별 에피소드에 나타난 인권감수성과 성별, 학년, 인권관련 교육경험, 세계시민정체성, 지각된 우리사회의 인권수준, 공동체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학생은 여성고용차별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남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노인의 행복추구권 관련 인권감수성은 1학년에 비하여 4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인권감수성 교육 경험에 따른 인권감수성 수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인권감수성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았다. 즉 증거 없이 용의자 체포, 구금관련,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 공장건립과 환경문제, 성별에 따른 고용 차별 및 장애우의 신체자유권관련 인권감수성은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교육경험의 종류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어떤 종류의 교육 경험에 기인한 것인지는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세계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과 환경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았다. 특히 특정 에피소드에 있어서 성별과 학년(나이)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인권교육 및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상황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년과 인권감수성과의 관계는 성별, 교육경험, 지각된 인권의식, 시민의식, 공동체의식을 공변인으로 MANC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변인 중 공동체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는 세계화 시대에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밝혀진 것처럼,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대학생이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난 점에서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인권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인권의식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문용린 1996; 이승미, 1999 106제인용). 이런 이유로 보다 적절한 인권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진단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Getz(1985: 이승미 1999, 제인용, 104)가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인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게 인권을 옹호하는가에 대하여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단계 중 인습수준에 있는 경우가 후인습기 수준의 사람들보다 더 비일관적이라고 한 것처럼(Kohlberg 1992), 본 연구에서는 에피소드에 따라서 즉, 학년에 따른 인권감수성 수준의 차이는 인지발달적 측면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Kohlberg의 도덕성발달에 대한 척도는 사용하지 않았기에 이 주장에 대한 한계가 있다.

표집이 특정 지방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4학년 학생의 참여율이 낮은 점에 있어서 해당 결과를 대한민국 전체 대학생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 결과는 방법 측면에서 특정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표집대상자가 지역소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기에 척도 점수 사용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용린 외(2002)의 연구에서는 단지 인권관련 문항에서 비인권관련 문항점수를 뺀 차이점수를 사용한 타당화 작업만을 실시한 결과만을 보여주었기에, 인권관련 문항만을 이용한 경우보다 인권관련문항에서 비인권관련 문항의 차이점수를 사용한 것이 더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척도점수 사용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단점이 있는 반면, 본 연구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더 타당한 점수 활용 방안을 탐색한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척도를 재타당화할 필요가 있으며, 발달에 따른 인권감수성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표본을 아동 및 중고생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적절한 문항개발을 통한 재타당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선필·염미경. 2013. “연구논문: 학생의 인권감수성 분석과 학교인권교육의 방향-서귀포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8(2): 23-49.
- 김자영. 2011. 연구논문: 청소년 인권의식의 형성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6(2): 57-83.
- 김현경·김신영. 2015.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청소년의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47(2): 29-52.
- 두산백과.세계인권선언(<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2875&cid=40942&categoryId=31647>)
- 문용린. 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 지능 측정 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문용린·문미희·곽윤정. 2002. 『인권감수성 지표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배영주. 2013. “세계시민의 역할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의 재구상”. 『교육과학연구』 44(2): 145-167.
- 송현정. 2004. “현대 시민교육의 목표로서의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승미. 1999. “인권의식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사형, 고문, 장애인 처우에 관한 추론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6(2): 103-120
- 한상범. 1991. 『인권: 민중의 자유와 권리』. 교육과학사.

Non-Korean References

- Bond, Trevor G. and Christine M. Fox. 2007. *Applying the Rasch Model: Fundamental Measurement in the Human Sciences*, 2n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rowson, H. Michael. 2004. "Human Rights Attitudes: Dimensionality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Ethics and Behavior* 14 (3): 235-253.
- Donnelly, Jack. 2013.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3rd e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Freeman, Michael. 2011. *Human Right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2nd ed. Malden MA: Polity Press.
- Horn, John L. 1965.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0 (2): 179-185.
- Linacre, John M. 2009. *A User's Guide to Winsteps Rasch-Model Computer Programs*. Chicago: Winsteps ([// www.winsteps.com](http://www.winsteps.com)).
- McMillan, David W. and David M. Chavis.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1): 6-23.
- R Core Team 2016.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https://www.R-project.org/>.
- Revelle, William. 2016. "Psych: Procedures for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Research." <https://CRAN.R-project.org/package=psych> Version = 1.6.12.
- Tabachnick, Barbara G. and Linda S. Fidell. 1996.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3rd ed. New York: HarperCollins.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Bae Young-ju. 2013. "The Roles of World Citizens and the Reconstruction of World Citizenship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4 (2): 145-167.

Doosan Encyclopedia. 2017. "World Human Rights Declaration." Accessed August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2875&cid=40942&categoryId=31647>).

Han Sang-bum. 1991. *Human Rights: People's Freedom and Rights*. Seoul: Kyoyookbook co.

Kim Hyoun-gyoung and Kim Shin-young. 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Pro-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on Youths' Civic Consciousness." *Theory and Research Citizenship Education* 47 (2): 29-52.

Kim Ja-young. 2011.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Typology of Youth's Human Rights Consciousness."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47 (2): 29-52.

Kim Seon-pil and Yeum Mi-gyeong. 2013. "The Tasks of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gwipo, Jeju-do."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8 (2): 23-49.

Lee Seung-mi. 1999.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Trends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Centered on Capital

Punishment, Torture, and the Handicapped."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 (2): 103-120.

Moon Yong-lin, Moon Mun-hee, and Kwak Yun-jung. 2002. *Development of a Human Rights Susceptibility Index*.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ong Hyun-jung. 2004. "A Study on Human Rights as a Goal of Contemporary Citizenship Education." PhD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